3. 무역협정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미국과의 협정

- 1996년 3월 러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산 가금류의 위생대책에 대한 각서 체결
- 1999년 5월 식물검역에 관한 MOU 체결(출력본만 존재)
- 2003년 9월 29일 러-미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수출 합의

○ 캐나다와의 협정

- 러 - 캐나다 어업 조정에 관한 MOU 체결
- 2007년 러-캐나다 농업 협력에 관한 공동서명 발표
-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상태 관리를 위한 기술 인력집단을 창설하기 위한 협력 선언

○ 벨라루스와의 협정

- 2011년 1월 러 - 벨 상호 농식품(육류 및 유제품) 물류 협정 체결 예정으로 현재 위생검역에 관한 결정은 모두 내려졌으며 물량이 관건임

○ 이란과의 협정

- 2009년 1월 23일 러 - 이란 농식품 협정 체결

○ 한국과의 협정

- 2009년 12월 22일 한국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러시아 수산청과 한 - 러 불법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함

□ 삼국관세 동맹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삼국간 관세동맹은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 발효, 7월 6일 단일 관세구역 설치(통관 코드의 통합)에 이어 201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삼국간에 통관 없이 교역이 이루어져 인구 1억 6,000만 명, 수입액 1,328억 달러, GDP 2,402억 달러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하게 됨.
- 이러한 삼국간 적용되는 관세율로 인해 러시아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에서 14%의 품목은 인하되는 반면, 4%의 품목은 인상되었으며 82%의 품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관세동맹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는 러시아가 87.97%, 카자흐스탄 7.33%, 벨라루스 4.7%을 나누게 됨.
- 러시아에게 삼국관세동맹 체결은 경제적 실익 외에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이은 유라시아연합으로의 정치적, 경제적 영토 확장의 초석을 다졌다 하겠으며 현재 관세동맹에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관세동맹에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삼국관세동맹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중.

□ WTO 가입

- 러시아는 2012 년 8 월 22 일부로 154 번째 WTO 정식회원국이 됨. 러시아는 G20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WTO 가입한 국가로, 이번 WTO 가입을 통해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과 경제통상의 역영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 시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상품 양허
 -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임.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9.5%에서 7.3%로 하향 조정되며 전 품목의 50% 정도는 양허관세율이 현행 수준이며, 30% 정도는 현행보다 5% 이내 수준으로 소폭 인하됨.

 - 관세율 인하 이행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이 적용되며, 민감한 상품은 5-8년이 적용됨.

- 서비스 양허
 -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11개 서비스 부문의 155개 하위부문 가운데, 116개 하위부문을 양허하기로 합의가 됨.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49%에서 가입 시

51%로 인상된 후에 5년 내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가 9년 후에 가능해지며, 보험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됨. 한편 외국은행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되며, 개별 금융기관에 있어 외국자본 한도는 폐지, 은행시스템에 있어서 전제 외국자본 참여 비율은 50%로 제한됨.

-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49%)이 4년 후에 폐지되고, 유통 부문에서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회사 설립이 허용됨.

○ 세관 수수료

- 현재 100,000 루블(약 3,333 루블)에서 30,000 루블(약 1,000 달러)로 최대 통관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 수출 관세

- 고철 및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는 향후 5년 이내에 '15% 또는 톤 당 15유로'에서 '5% 또는 톤 당 5유로'로 인하 예정이며, 구리 음극에 관한 수출 관세는 10%에서 4년 이내에 무관세(0%)로 변경 예정임. 목재는 WTO 가입 후 자작나무와 사시나무 목재에 대한 수출관세가 각각 75%, 소나무 목재는 50% 인하될 예정임. 현 목재의 관세는 큐브릭 미터 당 15유로 정도.